

광주FC 정호연, K리그 영플레이어상

이순민 베스트11 미드필더... MVP 울산 김영권 전남드래곤즈 미드필더 발디비아 K리그2 MVP

2023 K리그 시상식

광주FC의 중원을 책임진 이순민과 정호연이 K리그 시상대에서 빛을 받았다.

K리그 2023 대상 시상식이 4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진행됐다. K리그를 대표하는 경쟁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날 이순민이 베스트 11 주인공으로 호명됐고, 정호연은 '영플레이어상'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해 K리그2 감독상과 MVP를 받았던 이정호 감독과 '주장' 안영규가 무대를 바꿔 K리그1에서도 수상에 도전했지만, 리그 2연패를 이룬 울산현대의 홍명보 감독과 김영권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베스트11 미드필더 부문 수상자가 된 이순민은 올 시즌 35경기에 나와 1골 2도움을 기록했다. 생애 첫 올스타 선정과 A매치 데뷔 등 의미 있는 시즌을 보낸 이순민은 K리그 시상식까지 접수했다.

K리그2에 이어 K리그1까지 2년 연속 시상대에 오른 이순민은 "꿈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현재를 마주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이 드는 동시에 큰 책임감과 무게감을 느낀다. 나에 대한 많은 분들의 기대치가 예전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꿈이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게 돼서 무게감을 받아들이고 피하지 않고 부딪혀보려고 한다"며 "큰 울타리가 되어주는 광주FC 구단과 스태프, 프런트,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순민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가겠다. 이정호짱"을 외치면서 광주와 이순민의 오늘을 있게 해준 이정호 감독의 이름도 잊지 않았다.

광주의 '살림꾼' 정호연은 영플레이어상 주인공으로 단상에 올랐다.

K리그2 우승을 이뤘던 지난해 엄지성이 영플레이어상을 받았고, 이번에는 정호연이 K리그1에서 상을 받으면서 금호고 출신 신인상 명맥을 이었다.

금호고와 단국대를 거쳐 지난해 광주FC 유니폼을 입은 정호연은 올 시즌 34경기에 나와 2골 4도움을 기록했다. 정호연은 항저우아시안게임 대표로 발탁돼 한국의 금메달 행진에도 함께 했다.

정호연은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이 있다. 이정호 감독님이 매일매일 선수로서 안주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구단 코칭 스태프와 프런트, 경기장 찾아와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감사하다"며 "늘 변함없이 응원 해주고 사랑해 주는 가족에게도 감사하다는 말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팀이 빛날 수 있게, 선수들이 빛날 수 있게 같이 뛰었던 동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다.

한편 전남드래곤즈의 미드필더 발디비아는 K리그2의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다.

발디비아는 올 시즌 14골 14도움을 기록하면서 K리그2 득점 2위, 도움 1위에 올랐다. 발디비아는 28개의 공격포인트를 만들면서 전남 전체 득점(55골)의 절반을 책임졌다.

도움상에 이어 베스트11을 받은 발디비아는



2023 K리그1 신인상 광주 FC 정호연.



2023 K리그1 베스트 11 미드필더 이순민.

MVP까지 수상하면서 3개의 트로피를 차지했다.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발디비아는 영상을 통해 "리그 MVP는 처음이라서 정말 행복하다. 더 발전해서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며 역사를 쓰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레이오프를 갖고, K리그1 무대를 노린다. 영플레이어상은 부천FC의 공격수 안재준의 차지였다. 김포는 오는 6일과 9일 K리그1 10위 강원과 승강

플레이어상을 받고, K리그1 무대를 노린다. 영플레이어상은 부천FC의 공격수 안재준의 차지였다. 김포는 오는 6일과 9일 K리그1 10위 강원과 승강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4일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2023-2024 EPL 14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전반 6분 선제골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득점→자책골→도움... EPL 5번째 진기록

'맨 오브 더 매치' 선정 토트넘·맨시티 3-3 무승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한 경기에서 골과 도움을 올리고 자책골까지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EPL)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손흥민은 4일 열린 강호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2023-2024 EPL 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6분 선제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9호 골이다.

손흥민은 10월 28일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10라운드에서 8번째 골을 넣은 뒤 한 달여 만에, 경기 수로는 4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해 열릴 홀란(맨시티·13골),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10골)에 이어 EPL 득점 순위 3위에 올랐다.

아울러 손흥민은 맨시티를 상대로 통산 8번째 골을 넣어 '킬러' 이미지를 재차 각인했다.

여기에 그는 팀이 1-2로 밀리던 후반 24분 지오바니 로셀소의 골을 도와 시즌 2번째 도움도 작성, 이번 시즌 전체 공격 포인트를 11개로 늘렸다.

1골 1도움씩 기록한 손흥민과 데얀 쿨루세브스키를 앞세운 토트넘은 리그 3연패에서 벗어나 맨시티와 3-3으로 비겼다.

손흥민이 경기 시작 6분 만에 포문을 열었다.

쿨루세브스키가 길게 공을 띄워 역습 활로를 열어주자 오른쪽 측면 돌파를 시작한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안까지 그대로 들어가 오른쪽 발을 꽂았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반 9분 맨시티의 프리킥 상황에서 수비하던 손흥민의 다리에 맞은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며

자책골이 된 것이다.

EPL 공식 홈페이지는 손흥민의 선제골과 자책골 사이 '137초'가 걸렸다고 전했다.

전반 29분 페널티 지역 왼쪽 제레미 도쿠의 강한 오른발 슈팅이 골대를 맞고 벗어나 역전 기회를 놓친 맨시티는 약 2분 뒤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를 골대 앞에서 마무리하는 필 포든의 득점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1-2에서 후반전을 맞이한 토트넘은 후반 24분 손흥민의 도움에 이은 로셀소의 동점골로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센터 서클에서 넘어온 공을 손흥민이 감각적인 패스로 연결했고, 로셀소가 페널티 아크에서 왼발로 골 그물을 흔들었다.

맨시티는 후반 교체 투입된 잭 그릴리시가 후반 36분 홀란의 킥백을 받아 다시 앞서 나가는 저력을 발휘했으나, 토트넘은 패색이 짙어지던 후반

45분 쿨루세브스키의 '극장 동점 골'로 승리만큼 기분 좋은 무승부를 이뤄냈다.

이날 손흥민은 득점과 도움, 자책골을 모두 남기는 흔치 않은 날을 보냈다. EPL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EPL 한 경기에서 골과 도움, 자책골을 모두 기록한 선수는 손흥민이 역대 5번째일 정도로 드물다.

이날 손흥민의 경우 득점과 자책골 사이의 시간이 짧아 이와 관련해서도 기록이 남았다.

EPL 홈페이지는 리그 역사에서 경기 시작 10분 이내에 득점과 자책골을 모두 기록한 선수가 1999년 5월 애스턴 빌라 소속이던 개러스 배리에 이어 손흥민이 두 번째라고 전했다.

자책골은 아쉬웠지만, 손흥민은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에 해당하는 '맨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될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연합뉴스

이정후는 어디로...

SF·샌디에이고·양키스 등 관심



이정후(25·키움 히어로즈·사진)를 원하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구단 간 치열한 경쟁의 시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MLB 네트워크 존 헤이먼 기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MLB 사무국이 내일(5일) 오전 이정후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뉴욕 양키스를 비롯한 많은 팀이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KBO 사무국이 MLB 사무국에 이정후 포스팅을 요청한 날짜는 지난달 24일이다.

마침 미국이 추수감사절 연휴에 들어감에 따라 그로부터 열흘가량 지난 뒤에야 MLB 포스팅이 이뤄질 전망이다.

MLB 사무국이 30개 구단에 이정후 포스팅을 고지하면, 미국 동부시간 기준 다음 날 오전 8시부터 30일째 되는 날 오후 5시까지 이정후는 MLB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다.

이정후의 계약금 총액에 따라 원소속팀 키움은 받는 이적료는 달라진다.

키움은 이정후가 총액 2천만 달러 이하에 계약하면 보장 금액의 20%를 받는다.

총액 2500만 1달러~5000만 달러면 최소 기준선 2500만 달러의 20%인 500만 달러와 2500만 달러를 초과한 보장 금액의 17.5%를 챙긴다.

여기에 총액 5000만 1달러를 초과하면 5000만 달러까지의 보장액 437만5000달러에 5000만 달러를 넘긴 액수의 15%를 추가로 받는다.

이날 미국 야수포츠는 MLB 트레이드 시장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웹사이트 'MLB 트레이드 루머즈'를 인용해 이정후가 5년 총액 5000만 달러(약 650억원) 수준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타올 3할을 기대할 수 있는 타격 정확도를 갖춘 중견수'를 찾는 팀이 늘어나 영입 경쟁이 붙으면 계약 총액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USA 투데이는 '부자 구단' 메츠가 이정후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USA 투데이는 "메츠가 이번 겨울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한국의 중견수 이정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전했다. 이정후를 보기 위해 피트 퍼렐러 단장이 직접 서울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한 샌프란시스코, 좌타자 외야수를 몰색 중인 양키스도 유력 예상 행선지다.

/연합뉴스